



특 집 / IMF 체제가 양돈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IMF 체제에서 정부에 거는 양돈업계의 기대



윤 주 성
(본회이사)

1996년 7월 중돈 구입차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내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큰 도움을 주던 벗을 만났는데 그는 고국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과소비와 함께하는 낭비벽을 걱정하며 한국은 이대로 가면 일 이년 안에 망하게 된다고 호언장담하듯 말하는 모습은 마치 고국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처럼 오해하며 서운해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의 의식 속에는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고국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추측을 해본다. 국민 소득이 3만 불에 달하는 덴마크 국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 특히 농업을 하는 농부의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 속에서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풍부하게 한 번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만불 시대에 사는 고국인의 사치성과 함께 하는 과시욕 등을 그는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싸우다 싶이 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허세 부리며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사업차 왔다면 쇼핑에 열을리는 사업가, 공무에 막중함을 잊고 대우받기에만 급급하는 관료의식에 가득찬 공무원. 그곳에 오는 대부분 방문자를 보면서 그는 고국에 대한 애착이 때론 분노로, 때론 애원으로, 설득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나는 자기 도취에 취해 그를 이해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나는 그곳에서 연수할 때 농장에서 숙식하면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농업 선진국에 반해서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나의 목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농장을 만들고 싶어서 중돈을 그곳에서 구입하고, 농장이름 역시 정말식 돈을 모방했던 옛날을 생각하며 “정말농장”이라고 짓고 우리 부부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각오와는 달리 나 자신이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욱 노력하며 더 많은 시간을 농장을 위해 일하였다고 생각해 본적은 거의 없다. 그러하면서도 주위의 다른 동료와 비교하면 우리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부로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농장 대부분이 덴마크 농장에 비해서 모든 면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며 개방화 시대에서 좀더 노력하여야 될 줄로 믿는다.

IMF시대!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시대가 왔다. 그러나 멀리 외국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이미 예정된 한국의 미래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세계화 시대·정보화 시대 하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 우물안 개구리 되어 온국민이 살지 않았나 생각하니 누구의 잘못을 탓하라!

새 정부는 모든 축산정책은 축산인이 이행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인이 정책을 계획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부여해 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책도 거품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특히 전시 행정을 위한 점은 없었는지? 기초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 중인 점은 없는지? 실적 위주에 급급하여 부작용은 없는지? 진로 수정은 안해도 되는지? 종합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돈 단지, 계열화사업, 영농법인, 전업농가 육성 등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진 자금 등

현재 양돈 단지, 계열화사업, 영농법인, 전업농가 육성 등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진 자금 등 중간 점검을 세심하게 평가하시어 축산인 모두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길 바란다.

중간 점검을 세심하게 평가를 하여 축산인 모두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길 바란다.

1990년에서부터 작년까지 양돈 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금액이면 우리 양돈 산업을 1/3을 최신식 시설에서 우수 중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새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덴마크에서 연수할 때 가장 부러움을 느낀 곳은 축사 시설을 총망라해서 실험하는 연구소였다. 우리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만들을 실험하고, 급수기와 각기 다른 급이기를 실험하고, 환기 시스템 역시 상당히 많은 종류를 실험해서 연구하고, 분뇨 처리 시스템 역시 어느것이 효율적인지를 반복 실험하며, 모든 기자재 및 축사 자체 역시 축종별로 실험하여 방문자에게 항상 보고 그곳에서 많은 집약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험연구소가 현재의 덴마크 축산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겸비한 선진 양돈국으로 만든 모태라 믿어진다. 우리는 각 농장 자체로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곳에서 각자 경험에 의해서 축척되어지는 축산인이 되다 보니 다 나름대로 철학이 생기듯 고집스럽고 남의 기술을 잘 받아 드리지 않는 아집스런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기초연구에 좀더 투자를 하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되는 재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없는 시대로 이끌고 싶다. 바라는 점은 정부에 어느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책보다는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정책 또는 능력에 의해 대우받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養豚**